

AUTHOR 허 주

TITLE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성령 이해와 그에 따른 신학적 함축들
-주(主)로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론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IN 고려신학

vol.2 (1999): 381-420

참 고 문 헌

Frame, John.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95.

Geehan, E. R., ed. *Jerusalem and Athens: Critical Discussion on the Philosophy and Apologetics of Cornelius Van Til*. Nutley, New Jersey: Pre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l., 1977.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Vol. 2: Selected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7.

Van Til, Cornelius. *Common Grace and the Gospe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_____.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P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7.

Zemek, George J. *"Exegetical and Theological Bases For a Consistently Presuppositional Approach to Apologetics."* Ph. D. dissertation. Grace Theological Seminary, 1982.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성령 이해와 그에 따른 신학적 함축들

- 주(主)로서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론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

허 주
<신약신학>

I. 들어가는 말	V.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성령의 신학적 이해와 그 의미: '主로서의 예수 표현들, 기능들과 함축들 이해'와 관련하여
II.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이란?	VI. 나가는 말
III.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주된 표현들, 기능들과 함축들	참고문헌
IV.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주된 표현들, 기능들과 함축들	

I. 들어가는 말

필자는 본 논문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1) 현대 서구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발전과 (일반)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의 태동 아래에 비추어서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이란 용어와 그 전제를 설명한 후, (2)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표현과 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 바로 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이해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주(主; LORD)로 계시, 고백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서 주(主; LORD)로 계시, 고백되는 예수님과 그의 신적 연결 고리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의 중요한 성경신학적 시도를 선보이고자 한다.¹⁾ 지면의 제한으로 본고에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표현과 그 기능을 간략히 살핀 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중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표현과 그 기능을 요약 설명하고 그 신학적 의의와 오늘날 바른 '성령운동'에 대해 간단한 제언을 첨가함으로써 본 논지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이란?

1. 현대 성서학(Biblical Studies)과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

일반적으로 미국 신학교의 교과목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는 한국의 신학 수업은 크게 7가지 영역, 즉 (1) 성경원어(Biblical Language: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2)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 (3) 신약신학(New Testament Theology), (4) 성경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5) 조직 신학(Systematic Theology)/ 변증학(Apologetics), (6)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또는 교회사 Church History), (7)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때 '성서(성경)학'(Biblical Studies)이라

1) 본 논문에서는 성령과 관계되는 각각의 구절에 대한 석의(exegesis)를 피하고, 오히려 구약을 걸쳐 신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묘사와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의미'에 기초해서 성령에 대한 성경신학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 불리우는 이 용어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든 제반 학문 영역을 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²⁾ 따라서 성서학은 (1) 성경원어를 기초로 해서 (2) 구약(신)학과 (3) 신약(신)학을 (4) 성경해석학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연구하는 분야인 셈이다.

신학의 한 영역으로서의 성서학, 즉 '구약학'(Old Testament Studies)과 '신약학'(New Testament Studies)은 18세기 중반부터 '조직신학'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다가,³⁾ 19세기 말 - 20세기 초반부터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은 '성서학적 자의식'을 소유하면서, 신구약의 개별적 본문들과 성서학적 주제들을 다루게 되어진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의 틀을 소위 '역사비평적 방법들'(historical-critical methods)⁴⁾이라 하는데, 이 성서적 접근

- 2) '성서학'의 영역에서는 신구약 성경 본문 뿐 아니라 성경의 폭 넓은 이해를 위해 고대 근동 사회와 문화,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나는 유대(목시)문헌들 (e.g., 가경, 위경, 칠십인역, 사해사본), 랍비 문헌들(e.g., 탈군), 그레코-로망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진다.
- 3) 이 같이 '교의신학'과 거리를 두는 '성서학' 또는 '성경신학'에 대한 영역 이해는 1745년 경부터 일기 시작하다가 -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p.18을 보라 - 1787년 3월 30일 요한 필립 가블러(Johann Philipp Gabler: 1753-1826)는 알트도르프(Altdorf) 대학 교수 취임 강연을 통해 '역사적 성격(a historical character)을 지닌 성경신학'이 '교훈적 성격(a didactic character)을 지닌 교리신학'과 결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J.P. Gabler, "Oratio de iusto discrimine theologic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 (성경적 그리고 교리적 신학의 올바른 구별과 그들의 목적에 대한 바른 정의에 대하여) in *Klein Theologische Schriften* (eds. Th. A. Gabler and J.G. Gabler; Ulm: 1931), II, pp. 179-98; Hasel, Op. cit., p.22에서 재인용.
- 4) 이 비평 방법에 대한 개론적 배경과 이해를 위해서 R. Morgan and J. Barton, *Biblical Interpreta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62-132; I.H. Marshall,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xeter: Paternoster, 1977), pp. 126-95를 보라. 이 해석학적 전제와 그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지 해석의 틀은 18세기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합리주의(Rationalism)이다. 즉, 독일을 중심으로 한 19-20 세기의 신학, 특히 독립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서학은 소위 인본주의적 세계관(human-centered world view)의 전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다.⁵⁾ 이런 상황하에, 1920년대 초, 중반까지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의 신학(교)은 자유주의 신학(교)과 분리되는 그림으로써 각각의 교회들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⁶⁾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1940년대⁷⁾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보 또는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1970년대부터 출발한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해석학적 접근이 '문학/문에 비평'(Literary Criticism) 또는 '서사/이야기 비평(Narrative Criticism)'이라 할 수 있다.

- 5) 최근의 서구 성서학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개혁주의를 포함한) 복음주의적 입장 또는 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하라; 박수암, "신약학 분야에서의 회고와 전망," *교회와 신학*, 36(1999):14-31; 강대홍, "구약신학의 최근 동향: 구약신학의 문제점과 제안," *성경과 신학*, 21(1997):77-113; 심상법, "복음주의 신약연구의 동향," *성경과 신학*, 21(1997):37-70; cf., Harvie M. Conn, "A Historical Prologue: Inerrancy, Hermeneutic, and Westminster," in *Inerrancy and Hermeneutic: A Tradition, A Challenge, A Debate* (ed. H.M. Conn; Grand Rapids: Baker, 1988), pp. 15-34. 이와 함께, 현재 성서학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해석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J.B.Green,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Interpretation*(Grand Rapids: Eerdmans; Carlisle: Paternoster, 1995)을 보라.
- 6) 메이첸(J.G. Machen)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812년 설립) 교수들은 당 신학교의 신학적 좌경화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의 스승이었던 아키발드 알렉산더(A. Alexander), 찰스 하지(C. Hodge), 벤자민 워필드(B. Warfield)의 신학노선을 따라 - 우리는 이것을, '구프린스턴 신학'의 정신이라 칭하곤 하는데 - 섬기던 프린스턴 신학교를 퇴임하고 1929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하게 된다.
- 7)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학 정기 간행물들의 창간된 연도와 여기에 실린 글을 참고해 보라: *Theology Today* (1944); *Interpretation* (1947);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948).

일군의 중도보수적 성서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서학의 새로운 갱신을 요구하는 'Biblical Theology Movement'(성경신학 운동)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⁸⁾

성서학의 갱신을 위한 이 같은 '성경신학 운동'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한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신앙적, 교회적 배경으로 인해 뚜렷하고 분명한 '신학적'(theological) 또는 '성서학적'(biblical) 해석 체계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교수였던 게르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의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은 그 출발 시기(1894년)⁹⁾와 정의, 그리고 그 접근 방법에 있어(아래를 보라),¹⁰⁾ 위에서 언급한 '성경신학

- 8) B.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박문재 옮김, *성경신학의 위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pp.13-32(번역서); H.G. Reventlow,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Fortress, 1986), pp. 1-9. 차일스와 레벤트로우는 특히 미국에서의 '성경신학'을 향한 배경과 그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운동의 배경에는 '교회를 위한 신학', '통일성있는 신구약 성경', 그리고 '역사와 계시의 조화'와 같은 주장이 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Childs, Op. cit., pp. 33-46을 보라.
- 9) 우리는 여기서 보스가, 독일 내에서 18세기 초 중반부터 형성된 '구원사 학파'(the Salvation-History[Heilsgeschichte] School)에 속한 학자들(G. Menken: 1768-1831; J.T. Beck: 1804-78; K. Von Hofmann: 1810-77)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젤은 '구원사' 접근을 하는 대표적 현대 학자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들을 소개했다: Theodor Zahn; Adolf Schlatter; Oscar Cullmann; George E. Ladd; Leonhard Goppelt; Chester K. Lehman; B.S. Childs. Hasel, Op. cit., pp. 38-43; 69-71; 111-31을 보라.
- 10) C.K. Lehman이 지적했듯이, 보스와 동시대 학자들로서 보스와 같은 '성서적 접근'을 제시했던 사람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티트콤(J.H. Titcomb: 1871); 윌러(G.F. Oehler: 1870); 헤르만 슈츠(H. Schultze: 1892); 데이비드슨(A.B. Davidson: 1904). C.K. Lehman, *Biblical Theology: Old Testament*, vol. 1(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 김인환 옮김, *성경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운동'에 속했던 일군의 성서학자들과도 차이가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신학적' 또는 '성서학적' 영역이라 일컫지 않을 수 없다.¹¹⁾ 우리는 이것을 '개혁주의적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이라 칭하고자 한다.¹²⁾

2. 개혁주의 성경신학(Reformed Biblical Theology)

1894년 가을 학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설되는 '성경신학'의 첫 교수로 취임했던 보스(Vos)는 "학문과 신학 학과

pp.35-39(번역서)을 보라.

11) 이런 면에서, 보스는 자유주의 성서학자들 뿐 아니라, 중도 보수적 학자들과도 구별되는 '개혁주의 성서신학자'(Reformed Biblical Theologian)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그는 1862년 화란에서 출생하여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약 7년 정도 수학하여, 1888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아랍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즉, 자유주의 성서학의 본고장이었던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성경신학'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같은 보스적 접근 방법은 그의 동료였던 J.G. Machen(1881-1937), L. Berkohf(1873-1957), C. Van Til(1895-1987), 그리고 그의 제자인 J. Murray(1930-66), E.P. Clowney, R.B. Gaffin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로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개원 교수는 보스를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the father of a Reformed biblical theology)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Richard B. Gaffin, Jr., "Introduction," in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thardus Vos* (ed. R.B. Gaffin, J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p. xiv - 이 책이 최근에 한글로 번역되었는데, Gaffin이 첨가한 "서론"은 빠졌었다. 이길호, 원광연 옮김, *구속사와 성경해석*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보스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배경에 대해서는 pp. xiv-xxiii(원서)을 보라. 황창기 편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pp. 7-11도 참조하라.

12)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개혁주의 성서학자들'을 내포하고 있는 '복음주의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비복음주의' 또는 '자유주의' 성서학자들과 논쟁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 이슈는 차후에 기회가 되는 데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로써 성경신학의 개념"(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이란 취임 연설 논문을 발표함으로써¹³⁾ 그의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을 선보이고 있다.¹⁴⁾ 그 당시 보스가 신학을 크게 4개 분야 즉,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으로 이해한 후, 그의 '성경신학'을 '주경신학'의 한 부분으로, 즉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서의 주경신학 내의 성경신학으로 정의했다¹⁵⁾고 하는 것은, 오늘 날로 볼 때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 '성서학'(Biblical Studies)의 한 특수 분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보스는 '성경신학'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에 따르면,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Biblical Theology is that branch of Exegetical Theology which deals with the process of the self-revelation of God deposited in the Bible)¹⁶⁾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스

13) Gaffin, Op. cit., pp. 3-24(원서).

14)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스의 이 같은 성경신학적 방법(Biblical-Theological Approach)이 성경에 대한 그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해석학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의 성경적 해석 틀은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원리들을 체계적인 학문적 이론으로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보스보다 앞선 이 같은 성서학적 접근의 학자로는 J. Calvin (1509-1564)을 언급할 수 있으며(즉, 그의 기독교 강요[*The Christian Institutes*]에 흐르는 신학적 세계, 특히 제 2권 *The Knowledge of God the Redeemer in Christ, First Disclosed to the Fathers under the Law, and then to us in the Gospel*을 보라), 그와 동시대인으로서, 하지만 독일학자로서 Adolf Schlatter (1852-1938)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Cf., 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관계," *교회와 문화*, 2(1998): pp. 38-44.

15)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 이송구 옮김,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p. 4-5(원서).

가 정의하는 '성경신학'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스는 그의 '성경신학'을 간단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선호하는 표현으로써 '특별계시의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로 정의하고 있다.¹⁷⁾ 이제 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전제와 그 주요 특징들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간단히 살펴본 후 필자의 본 주제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3.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전제들과 특징들¹⁸⁾

3.1.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 말씀(God's Word)이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또는 계시하셨다'라는 계시의존의 신앙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온전하고 충분하게 나타났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히 1:1-2; 딤후 3:15-17; 벰후 1:20-21).

3.2. 성경의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는 역사적 점진성(Historical Progressiveness)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세계와 관련 지으면서 나

16) Ibid., p. 5.

17) Ibid., p. 14. Cf., 보스의 제자, C.K. Lehman의 정의도 참조하라, Lehman, Op. cit., vol. 1, p. 35; 정창균, "구속사적 설교론의 근거와 제기되는 문제들," 그말씀, 11(1998): p. 8 도 보라.

18) 본 단락은 보스의 책 *Biblical Theology*의 개론 부분에서 소개되는 성경신학의 '주요 특징'(Main Features: pp. 5-9), '원리'(Principles: pp. 11-14), 그리고 '방법'(Method: p. 16)들과 그의 프린스턴 신학교 취임 연설 논문('학문과 신학 학과로서 성경신학의 개념,' 구속사와 성경해석, pp. 9-35)을 근거로 해서 필자가 4가지로 정리해 본 것이다. Cf., Lehman, Op. cit., vol. 1, pp. 33-35.

타하는데, 성경은 특히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구속(redemption)을 초점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밝혀져 나가게 된다 (히 1:1-2).

3.3 이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 나타나는 성경의 특별계시는 구속사(언약)적(Redemptive Historical/ Covenantal)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ed)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을 다루는 특별한 계시로써, 그의 백성들과 언약관계(covenant relationship: e.g., 노아[창 9:8-17], 아브라함[창 12:1-9; 15:1-17; 17:1-19], 모세[출 19:1-6], 다윗[삼하 7:4-29], 예레미야[렘 31:31-34])를 맺음으로 가시화 되어지고, 이 언약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예수의 출생, 사역, 죽음, 부활로 그 내용과 성취에 있어 최절정에 도달하며(히 1:1-2; 눅 24:24; 행 13:32-33; 갈 3:15-18), 마침내 예수의 재림으로 완전 종결에 이르게 된다(계 22-22). 즉, 성경의 특별계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구속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시될 뿐 아니라 성취, 적용됨을 보여준다(요 5:39; 고후 1:20). 이런 면에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접근을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관점(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을 그 핵으로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¹⁹⁾

19) Gaffin, Op. cit., pp. xvi-xvii, xx. 이와 같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집필된 주요 책자 또는 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본 논문에서 따로 인용하지 않은 책들로서): E.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김정훈 옮김, 설교와 성경신학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L. Goppelt,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최종태 옮김, 모형론: 신약의 구약해석 (서울: 새

3.4. 성경의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 즉, 하나님의 계시의 유기성(the Organic Wholeness of God's Revelation)²⁰⁾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해석 또는 이해

순, 1987); O.P. Robertson, *Christ of the Covenants* (1980);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83); W.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Paternoster: Lancer, 1984); idem,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Lancer: Baker, 1985); H.N. Ridderbos, *Redemptive History and New Testament Scriptures* (Biblical & Theological Studi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nd revised edn., 1988); W.A.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 안봉호, 김의원 옮김, 구원계시의 발전사 I, II (서울: 성경읽기사, 1993); 김영철, *성경신학의 입장에서 본 노아홍수: 구약본문에 대한 성경신학적 해석의 실례* (서울: 여수론, 1988); M. Strom, *The Symphony of Scripture: Making Sense of the Bible's Many Themes* (Downers Grove: IVP, 1990) - 오광만 옮김, *성경교향곡* (서울: IVP, 1993); G. Goldsworthy, *According to Plan: The Unfolding Revelation of God in the Bible* (Lancer: IVP, 1991); V.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Brentwood: Wolgemuth & Hyatt, 1991); T. Longman, III & D.G. Reid,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성종현 옮김, *거룩한 용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이순태, *언약과 구속*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cf., B.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Philadelphia: Fortress, 1992). 일반적 '성경신학'에 대한 평가와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보라: J.D. Smar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H.G. Reventlow,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J. Reumann, *The Promise and Practice of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1). 성경신학의 이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D.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A Study of Some Modern Solutions to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Leicester: IVP, 1976) - 오광만 옮김,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서울: 엠마오, 1989)를 보라.

(Holistic Interpretation or Understanding)를 추구한다.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그의 계시가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한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 신적 통일성을 잃어버릴 수 없는 성경의 신적 기원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에 '선지자들과 성경의 저자들'(즉, 인간들로)하여금 '여러 부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 성경의 다양성을 읽을 수 있다.²¹⁾ 하지만, 이 다양성은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 as God's Word/ revelation)²²⁾이라 할 것이다.²³⁾

- 20) "유기적 해석은 한 마디로 특정 본문을 전체와의 관련 아래서 해석하는 것이며,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해석의 준거들은 본문의 신학적 지평과 구속사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계시와의 관계이다": 정창균, *Op. cit.*, p. 10.
- 21)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신적 다양성'(divine diversity)에 대해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경해석학 교수인 V.S. Poythres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87), pp. 48-49; 53-54; 85-86을 보라.
- 22) 보스는 하나님 계시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씨앗'(seed)이 자라 '나무'(tree)가 되는 유기적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Vos, *Op. cit.*, p. 7.
- 23)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관점은 예수님 자신 뿐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경적 세계관'(Biblical World-View)과 일맥상통하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대표적이라 하겠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 1:1-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행 13:32-33a);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5-16);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예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요 5:39); "저녀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눅 22:20; cf., 히 7:22; 8:1-13;

Ⅲ.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주된 표현들, 기능들과 함축들²⁴⁾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에는 루아흐(רוּחַ)가 모두 389번 발

림 31:31-34);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또 이르시되 내[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4-45);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니라”(벧전 1:1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 24) Ju Hur, “The Usage of Ruach/ Pneuma in the Extratext of Luke-Acts as Literary Repertoire,” in *A Dynamic Reading of the Holy Spirit in Luke-A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England 1998), pp. 24-56을 보라. 구약의 ‘성령’에 대한 서구 학계의 주요 문헌들은 필자의 논문 p. 24에 있는 각주 5를 참고하라. (필자의 학위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는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의 성령에 대한 역동적 해석,” *호서신학*, 5(1998): pp. 347-388 과 “누가의 성령: 과연 누구를 위한 ‘성령’인가?,” *성서사랑방*, 7(1999): pp. 30-41을 보라). 최근 한국 성서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다음과 같은 논문들도 참고해 보라: 박동현, “아훼 하나님의 영과 그의 백성,” *성령과 교회* (김지철 편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pp. 5-65;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구약신학의 맥* (서울: 두란노, 1996), pp. 327-55; 김지찬, “구약사의 지평에서 바라본 성령의 사역,” *성경과 신학*, 20(1996): pp. 47-93;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20(1996): pp. 359-392; 김정우, “구약에 나타난 주의 영에 대한 교차 방법론적 접근(A Cross-Sectional Approach),” *성경과 신학*, 15(1994): pp. 84-158.

견된다. 그 가운데 - ‘바람’(wind)은 125번(e.g., 창 3:8; 왕하 3:17; 잠 25:14, 23), ‘호흡’(breath)은 48번(e.g., 욥 27:3; 사 30:28; 시 104:30), ‘인간의 영’(anthropological spirit)은 97번(e.g., 창 41:8; 출 35:21; 신 2:30), ‘악한 영’(evil spirit)은 21번(e.g., 사 9:23; 삼상 16:14; 사 19:14) 사용되었는데,²⁵⁾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각각의 범주에 속한 빈도수는 다소 틀려질 수 있다 - 신적 표현의 ‘영’(the divine Spirit)으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모두 98번이다. 이 신적 표현으로서의 루아흐(רוּחַ)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묘사되어져 나타나는데,²⁶⁾ 아래에서 이 용어들이 쓰여진 경우와 이것들의 기능들을 살핀 후, 여기에 담긴 신학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1. 성령의 주된 표현들²⁷⁾

1.1 ‘하나님의 영’(God’s Spirit of God)

‘루아흐 엘로힘’(רוּחַ אֱלֹהִים)으로 표현된 이 경우는 모두 13번으로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발견된다.: 창 1:2; 41:38; 출 31:3; 35:31; 민 24:2; 삼상 10:10; 11:6; 19:20, 23; 겔 11:24; 욥 33:4; 대상 15:1; 24:20(cf., 삼상 16:15, 16, 23; 18:10). 즉 이 표현은 모세오경 뿐 아니라, 역사서, 예언서,

25) J. Hur, Op. cit., p. 24와 그 곳에 있는 각주들을 보라.

26) 마소라 텍스트의 루아흐(רוּחַ)는 칠십인역(the LXX)에서 대부분 프뉴마(πνεῦμα)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95번(3번[민 LXX 23:7; 사 11:3; 숙 1:6] 첨가와 6번[잠 1:23; 사 31:3; 40:13; 겔 39:29; 호 9:7; 숙 6:8]의 생략)이며, 마소라 텍스트에 없었지만, 칠십인역에 첨가된 ‘하나님의 영’은 14번으로 나타난다.

27) 아래에서 밝힌 3 가지 표현들 이외에 쓰여진 것은 다음과 같다: ‘Your good Spirit’(주의 신이 선하시니 - 시 143:10; 느 9:20); ‘the Spirit of justice’(판결하는 신 - 사 28:6); ‘the Spirit of compassion and supplication’(은총과 간구하는 영 - 숙 12:10).

그리고 시가서에서 고루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의미로서의 영'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1.2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루아호 아도나이'(רוּחַ אֲדֹנָי)로 표현된 이 경우는 모두 24 번 사용되었다: 사 3:10; 6:34; 11:29; 13:25; 14:6, 19; 15:14; 삼상 10:6; 16:13; 14a; 삼하 23:2; 왕상 18:12; 22:24; 왕하 2:16; 사 11:2; 40:13; 61:1; 63:14; 겔 11:5; 37:1; 미 2:7; 3:8; 대상 18:23; 20: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신하신 후(출 3),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주의 영'으로 신적 루아호(רוּחַ)를 표현하고 있다. 이 두 표현들은 특별한 구별 없이 본문 속에서 아래와 같은 기능들(3.2 성령의 주된 기능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God's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모두 3 번 발견된다: 시 51:11과 사 63:10, 11 (cf., 칠십인역[the LXX] 단 4:8-9, 18 과 수산나 1:45).

“하나님이여 내[다윗]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좇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편).

“그들이[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여호와 하나님]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이사야).

한글 성경과 달리, 영어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였는데, 즉 시편에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Your Holy Spirit)으로,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거룩한 영'(His Holy Spirit)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문맥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소유격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즉 거룩한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영 / 성령'임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63:14에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는데, 앞 절에서 두 번 씩 언급한 '그의 거룩한 영'을 다름 아닌 '여호와와 그의 신'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그의 신(the Spirit of the Lord)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환언하면, 구약에서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쓰여진 경우는 모두 3번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²⁸⁾으로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에서 본 두 표현들('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을 고려해 볼 때, 이것('하나님의 성령')은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구약에서 신적 의미로 쓰여진 루아호(רוּחַ)는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루아호',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써 계시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²⁹⁾

28)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격 또는 성품에 대한 대표적 묘사가 바로 '거룩함'(Holiness)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출 22:32; 29:43; 레 10:3; 19:2; 민 39:27; 삼상 6:20; 사 5:16; 6:3; 11:9; 겔 20:41; 28:22, 25; 36:23; 38:16; 39:27; 단 4:8, 9, 15; 5:11, 14; 호 11:9. 특히 이사야서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서의 하나님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사 12:6; 17:7; 29:19; 40:25; 41:14, 20; 43:3; 45:11, 15, 18ff.; 47:4.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의 이름도 거룩할 수 밖에 없다: e.g., 레 22:2; 대상 16:10, 35; 시 33:21; 103:1; 겔 36:20-22.

29) 위의 본문들과는 별도로, '신적 표현의 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유격으로 사용된 경우를 주목하라: '나의 영'(רוּחִי: My Spirit) - 창 6:3; 사 30:1; 42:1; 44:3; 59:21; 겔 36:27; 37:14; 39:29; 욥 3:1, 2; 학

2. 성령의 주된 기능들³⁰⁾

2.1. 창조 (the Spirit of Creation)

창 1:2; 시 104:27-30; 욥 26:13; 33:4; 사 40:12-14(cf., 시 33:6-7; 창 2:7).

2.2 환상이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 (the Spirit of Interpretation)

요셉(창 41:38)

다니엘(단 4:8-9, 18; 5:11, 14).

2.3 특별한 재능 - 특히 성막/성전과 관련하여 (the Spirit of Gift)

브라셀(출 31:3; 35:31)과 다른 기술자들(출 28:3)
cf., 다윗(삼하 23:2).

2.4 기적 (the Spirit of Power)

모세(민 11:17, 25)

사사들: 웃니엘(사 3:10); 기드온(사 6:34); 입다(사 11:29);

삼손(사 13:25; 14:6, 19; 15:14).

엘리야(왕하 2:9, 15)

엘리샤(왕하 2:14; cf., 왕하 2:22, 24; 시락 48:12)

2:5; 숙 4:6; 6:8; 잠 1:23; '그의 영'(רוּחַ: His Spirit) - 민 11:29; 사 34:16; 48:16; 숙 7:12; 시 106:33; '당신의 영'(רוּחֵךְ: Your Spirit) - 시 139:7; 느 9:30.

30) 본 단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발견되는 가까운 문맥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기능들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서 이 같은 서술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필자의 논지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Cf., 종신대학원 구약학 김정우 교수는 '구약에 나타난 주의 영에 대한 교차방법론적 접근'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1) 창조의 영, (2) 구원의 영, (3) 예언의 영, (4) 새 언약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정우, Op. cit., pp. 84-158.

2.5 예언, 계시의 말씀, 지혜 (the Spirit of Prophecy)

모세(민 11:17, 25)와 칠십 장로들(민 11:25-26).

여호수아(신 34:9; 민 27:18)

사울(삼상 10:6, 10; 19:23)과 그의 메신저들(삼상 19:20)

선지자들(느 9:30; 숙 7:12; cf., 왕상 22:24/ 대하 18:23)

다윗(삼상 16:13-14)

아사랴(대하 15:1ff.)

야하시엘(대하 20:14-17)

cf., 이사야(사 63:10, 11, 14).

2.6 선민으로서 개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이며 윤리적(구원론적) 삶 (the Spirit of Faith/ for Ethical Life; the Soteriological Spirit)

다윗(시 51:11; cf., 139:7; 143:10)

선민 이스라엘 백성(사 63:10, 11).

2.7. 장래에 나타날 다윗의 (메시아적) 후손과 회복될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the Spirit of Promise)

메시아적 다윗의 후손(사 11:1-2; cf., 사 42:1; 61:1 이하; 예레 149:3; 62:2; 솔로몬의 시편 17:37; 18:7)

회복될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사 32:14-15; 44:3b; 59:21; 겔 36:27; 37:14a; 39:29; 숙 12:10; 율 2:28-29).

3. 함축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신적 의미의 루아호(רוּחַ)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된 개개의 인물들³¹⁾에게 여러 가지 은

31) 요셉(창 41:38); 브살렐(출 31:3; 35:31); 모세(민 11:17); 엘닷과 메닷(민 11:26); 발람(민 24:2; 민 LXX 23:7); 여호수아(민 27:18; 신 34:9); 웃니

사들(해석, 재능, 기적, 예언, 계시, 지혜)과 선민들을 위한 신앙과 구원의 삶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power)과 존재(presence)하심과 역사(activity)하심을 나타내주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영'(the Spirit of God the LORD, Himself)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메시야적 다윗의 후손과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주실 하나님의 증표/사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주(主)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e.g., 창 6:3; 사 31:3; 40:13; 시 139:7)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그 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해주는 '증거의 영'(the Spirit of witness to God the LORD)으로 볼 수 있겠다.

IV. 신약에서³²⁾ 나타난 성령의 주된 표

엘(삿 3:10); 기드온(삿 6:34); 여호사밧(삿 11:29); 삼손(삿 13:25; 14:6, 19; 15:14); 사울(삼상 10:6, 10; 11:6; 19:23); 다윗(삼상 16:13; 삼하 23:2); 엘리야(왕상 18:12; 왕하 2:16; 시략 48:12); 엘리사(왕하 2:15; cf., 시략 48:12); 이사야(사 61:1; 시략 48:12); 에스겔(겔2:2; 3:12, 14, 24; 8:3; 11:1, 5, 24; 37:1; 43:5); 미가(미 3:8); 다니엘(단 4:5, 6, 15; 5:11, 14; 수산나 1:45; 벨 3:16); 아마새(대상 12:19); 아사랴(대하 15:1); 야하시엘(대하 20:14); 스가랴(대하 24:20); 솔로몬(지혜서 LXX 7:7).

32) 신약에서의 성령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3:41; 1:8; 눅 24:44-49)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논문을 요구한다. 본 고에서는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맥에서 나타나는 성령에 대한 용어들과 그 기능에만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본 주제에 대해서는 R.B. Gaffin,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pp. 14-39를 보라. 아울러 S.B. Ferguson, *The Holy Spirit* (Leicester: IVP, 1996) - 김재성 옮김, 성령 (서울: IVP, 1999), pp. 65-72; 91-106(번역서)과 J. Hur, Op. cit., pp. 200-207을 참조해 보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신학적 의의와 그 중요성(The Biblical-Theological Significance and Its Importance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 '종말의

현들, 기능들과 함축들: 누가복음-사도 행전을 중심으로³³⁾

1. 성령의 주된 표현들³⁴⁾

영'(the Eschatological Spirit), (2) '약속된 하나님의 영'(God's Promised Spirit of New Covenant), (4)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께서 부여주시는 '예수의 영'(the Spirit of Jesus as Christ & Lord) 그리고 (5) 종말론적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선교의 영'(the Spirit of/for Mission).

33) 서구 학자들의 주된 견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글들을 보라: F. Bovon, *Luke the Theologian. Thirty-Three Years of Research (1950-1983)* (trans. K. Mckinney; Allison Park: Pickwick Papers, 1987), pp. 202-238; M.M.B. Turner, "The Significance of Receiving the Spirit in Luke-Acts: A Survey of Modern Scholarship," *Trinity Journal* 2(1981), pp. 131-58; idem,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in Israel's Restoration and Witness in Luke-Acts* (JPTSup, 9;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pp. 20-79; R.P. Menzies, *The Development of Early Christian Pneumat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Luke-Acts* (JSNTSup, 54; Sheffield: JSOT Press, 1991), pp. 18-47. 한편 주된 국내 학자들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최갑중, *예수, 교회, 성령: 누가와 바울의 성령론에 관한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idem, *성령과 율법*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p. 21-54; 이한수, *신약의 성령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pp. 66-110. 이 두 책은 누가의 성령론과 더불어 바울과 요한의 성령론도 각각 다루고 있다. 한국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령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쟁론 되었던 논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성과 연속성'과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에 대해서), 최갑중 교수의 1992년 책 p. 12에 있는 각주 1번을 보라.

34)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J. Hur, Op. cit., pp. 110-27을 보라. 누가-행전 이외의 신약 본문들에서 나오는 성령의 주된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요 14:16, 26 - '위로자/안위자'[comforter]); '도움자'[helper]; '변호자'[advocate];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 요 14:17; 15:26; 16:13);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Christ; 롬 8:9); '살리는 영'(a life-giving Spirit; 고전 15:45); '양자의 영'(the Spirit of sonship; 롬 8:15); '그 아들의 영'(the Spirit of his Son; 갈 4:6); '영광의 영'(the Spirit of glory; 벧전 4:14); '예언의 영'(the Spirit of prophecy; 계 19:10).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프뉴마(πνεῦμα)라는 용어는 모두 106번(누가복음서에서 36번, 사도행전에서 70번; 신약에서는 총 379번) 발견되었는데 - '호흡'(breath)으로는 3번(눅 8:55; 23:46; 행 7:59), '인간의 영'(anthropological spirit)으로는 5번(눅 1:17, 47, 80; 행 17:16; 18:25), '천사의 영'(angelic spirit)으로는 4번(눅 24:37, 39; 행 23:8, 9), '악한 영'(evil spirit)으로는 20번(e.g., 눅 4:33, 36; 행 5:16; 8:7) - 그 가운데 신적 의미의 '영'(the divine Spirit)으로는 모두 74번(누가복음서에서 17번, 사도행전에서 57번) 나타난다. 구약에서 신적 루아흐(רוח)를 살펴 보았듯이, 이제 본 단락에서도 신적 프뉴마(πνεῦμα)의 주된 표현들과 기능들을 간단히 밝힌 후, 하나님 계시의 발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신학적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1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³⁵⁾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적 의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적인 표현으로 볼 때, 단지 2번만 사용되었다. 그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 2:17, 18로써,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구약의 요엘서 2:28, 29절을 인용하면서 사용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그리고 저자 누가)가 오순절에 강림하신 신약 시대의 성령을 다름아닌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조: '내[예수] 아버지[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눅 24:49]).

35) 다른 신약 본문들에서도 발견된다: 마 3:16; 12:28; (마 10:28 - '너희 아버지의 영'; 12:18); 롬 8:9, 14; 고전 2:11, 14; 3:16; 6:11; 7:40; 고후 3:3(엡 4:30; 살전 4:8 - '하나님의 성령'); 요일 4:2, 13.

1.2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³⁶⁾

이와 유사하게, '주의 영' 또한 단지 3번만 발견된다: 눅 4:18; 행 5:9; 8:39.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선지자적 메시아의 사역을 증거 하는데 있어서 이사야서 61장 1-2절을 인용하는 가운데 사용된 것이다.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언급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는 4절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본문인 사도행전 8장 39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세례를 주고 난 다음, 성령이 빌립을 다른 장소로 인도할 때 사용되어진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πνεῦμα κυρίου)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행 8:38-39). 여기서 '주'(κύριος)라고 칭한 그 주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인지, 우리에게 확실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들은 행 1:24; 5:14; 8:22; 9:31; 16:14-15 에서도 발견되는데, 저자 누가의 '의도적인 모호함'[intentional ambiguity]으로 간주할 수 있다).³⁷⁾ 특히 근접 문맥인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나타나는 '주'(κύριος)의 용어가 분명하게 승천하신 예수께

36) 고후 3:17도 참조해 보라.

37) 누가-행전에서 퀴리오스(κύριος)가 신적 용어로 사용된 것은 148번(총 213번 중에서) 발견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두 64번(누가복음에서 37번, 사도행전에서 27번), 예수께는 모두 82번(누가복음 23번, 사도행전에서 59번) 적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주목해야 할 것들이다: '주, 예수'(Lord, Jesus) - 19번(행 1:21; 4:33; 7:59; 8:16; 9:17; 10:36; 11:17, 20; 15:11, 26; 16:31; 19:5, 13, 17; 20:21, 24, 35; 21:13; 28:31); '주의 말씀'(the Word of the Lord) - 4번(행 9:28; 19:13, 17; 21:13).

적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8:16; 9:10-11, 13-15, 17, 31.

1.3. '성령'(the Holy Spirit)³⁸⁾

누가-행전에서의 '성'령(the Holy Spirit)³⁹⁾은 모두 54번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표현되고 있다:⁴⁰⁾

(1)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눅 12:10, 12; 행 1:8; 2:38; 4:31; 9:31; 10:45; 13:4; 16:6(9번).

(2)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눅 2:26; 3:22; 10:21; 행 1:16; 2:33; 5:3, 32; 7:51; 10:44, 47; 11:15; 13:2; 15:8, 28; 19:6; 20:23, 28; 21:11; 28:25(19번); cf., 마 12:32; 막 3:29; 12:36; 13:11.

(3) πνεῦμα ἅγιον

눅 1:15, 35, 41, 67; 2:25; 3:16; 4:1a; 11:13; 행 1:2, 5; 2:4a; 4:8, 25; 6:5; 7:55; 8:15, 17, 19; 10:38; 11:16, 24; 13:9, 52; 19:2 x 2(26번); cf., 마 1:18, 20; 3:11; 막 1:8.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이란 표현이 단 3번 사용되었던 것을 상기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 전반에 걸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성취로써 '성령'

38) 다른 신약 본문들에서도 발견된다: (공관 복음서는 위의 본문을 보라) 요 1:33; 14:26; 20:22; 롬 (1:4); 5:5; 9:1; 14:17; 15:13, 16; 고전 6:19; 12:3; 고후 13:14; 엡 1:13; (4:30); 살전 1:5, 6, 4:8; 딤후 1:14; 딤펴 3:5; 히 2:4; 3:7; 6:4; 9:8; 10:15; 벧전 1:12; 벧후 1:21; 유 20.

39) 이 표현, 즉 '성령'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롬 8:9, 14; 고전 2:11, 14; 3:16; 6:11; 7:40; 고후 3:3; 5:5; 13:14; 요일 4:2, 13; 유 20)에 대한 신약 저자들의 일반적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40)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J. Hur, Op. cit, pp. 111-19를 보라. 본 단락에서는 단지 구약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란 표현의 일반적 이해는 주목해 볼 만하다 하겠다.

이 용어와 관련지어 우리는 적어도 2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누가는 (다른 신약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사 44:3, 겔 36:27; 37:14)을 소유한 '종말에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거룩한 백성'(οἱ ἅγιοι - 행 9:13, 32, 41; 26:18; cf. 행 5:32; 벧전 1:2; 2:9-10;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을 '성도'[οἱ ἅγιοι]라 명하고 있다)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⁴¹⁾ (2) 누가는 (필자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거룩한'이란 용어를 하나님(눅 1:49; 11:2) 자신보다도 오히려 예수(눅 1:35; 4:34; 행 3:14; 4:27, 30; cf., 행 2:17; 13:35)⁴²⁾라고 하는 인물에게 더 많이 (!)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함께 신적 거룩함(divine holiness)의 성품을 '성령'(the Holy Spirit)과 함께 나누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누가-행전 (또는 신약)의 '성령'이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41) 이런 면 - 특히 '하나님의 영'을 종말론적이고 거룩한 영(the eschatological & holy Spirit)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 에서 신약의 백성들은 사해쿰란 공동체와 유사(1QS 9:3-4; 1QH 7:6-7; 9:32; 16:6-7; 16:11-12; cf., 1QS 8:5, 9; CD 3:19; 4:19)한 '하나님의 영' 이해를 보여준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이들과 엄청나게 구별된 점을 갖고 있다(아래를 보라).

42) 눅 1:35 -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διὸ καὶ τὸ γεννώμενον ἅγιον κληθήσεται υἱὸς θεοῦ); 눅 4:34 - '하나님의 거룩한 자'(οἶδά σε τίς εἶ, ὁ ἅγιος τοῦ θεοῦ); 행 3:14 - '거룩하고 의로운 자'(τὸν ἅγιον καὶ δίκαιον); 행 4:27, 30 - '하나님의 기쁨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τοῦ ὀνόμα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ατρὸς σου Ἰησοῦ).

3.1. '예수의 영'(the Spirit of Jesus)⁴³⁾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한 한 특별한 표현을 보고자 한다. 바로 사도행전 16:6-7에 나오는 '예수의 영'이라는 용어이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τὸ πνεῦμα Ἰησοῦ)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본 문맥에 따르면, 6절에서 먼저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친히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인도함으로써(행 16:8-10에 나오는 바울의 '환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선교의 신적 가이드'(the divine guide for mission)로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상황(7절)에서 누가는 6절에 언급한 그 성령이 '예수의 영'(the Spirit of Jesus)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누가의 담대한 표현⁴⁴⁾은 어

43) 다음과 같은 유사한 표현들이 다른 신약 본문에서 쓰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Jesus Christ: 빌 1:19);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Christ: 롬 8:9; 뱀전 1:11); '그의 아들의 영'(the Spirit of his son: 갈 4:6); cf.,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고전 15:45; 논란이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고후 3:17 에 나오는 '주'를 예수께 적용시킬 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동의한다 -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성령과의 계시-발전적 관계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탄생(마 1:18, 20; 눅 1:35); 세례(마 3:16; 눅 3:22; 막 1:10; 요 1:32); 시험(마 4:1; 눅 4:1); 사역(눅 4:14, 18; 요 3:34; 행 10:38); 죽으심(히 9:14); 부활(롬 1:4; 딤펢전 3:16)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고전 15:45); 주(主)로서 성령 보내심(눅 24:49; 행 2:33; 요 15:26; 16:7; 20:22).

44)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중간기 문헌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하자면 장차 다가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에 주체적으로 쓰여지는 이 같은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M. Turner의 "The Spirit of Christ and 'Divine' Christology," in J.B. Green and M. Turner (eds.), *Jesus of Nazareth Lord and Christ: Essays on the Historical Jesus and New Testament Christology* (Festschrift I.H. Marshall; Geand Rapids: Eerdmans, 1994), pp. 413-36과 J. Hur, Op.

떤 면에게 가능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2개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누가복음 24:49 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약속'과 '위로부터 능력'은 모두 오순절에 강림하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한다(행 1:4-5, 8; 2:38을 함께 보라).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겠다 - "내[예수]가 ... 보내리니"(ἐν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 고 하는 것에 있다. 말하자면, 구약에서 '성령'은 항상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영'을 당신(예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는 성령에 대한 간접적 용어인 '내 아버지의 약속'과 '위로부터 능력'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른다).

둘째는 사도행전 2:33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부활하시고 존귀케 되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본문은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32절을 인용한 후, 그 사건을 계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베드로는 지금 강림하신 성령이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임을 증거 하면서, 동시에 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 그 받은 성령을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것이다)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cf., 요 14:26; 15:26; 15:26; 20:22)

이런 예비적 본문들(아울러 눅 12:12 과 21:15도 주목해 보라)을 의미 있게 고려할 때, 우리는 행 16:17 에서 '성령'

을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의 영' 또는 '예수의 성령'으로도 담대하게 표현된 것에 대해 그 신학적 실마리를 풀게 되는 것이다.

2. 성령의 주된 기능들

2.1. 메시아 예수의 탄생과 그 사역 (종말론적 재창조의 사역: 메시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 God's Spirit Promised to the Messiah)

예수(눅 1:35; 3:22; 4:1, 14, 18; 10:21; 행 1:2; 2:33; 10:38).

2.2. 예언적, 계시적 선포 ('예언의 영' / the Spirit of Prophecy)

엘리사벳(눅 1:41ff.)

스가랴(눅 1:67ff.)

예수(눅 4:18ff.)

베드로(행 4:8)

스데반(행 7:55ff.)

아가보(행 11:28ff.; 21:11)

바울(행 13:9ff.)

두로의 제자들(행 21:4).

2.3. 계시적 인도 ('선교의 영' / the Spirit of/for Mission)

시므온(눅 2:26-27)

예수(눅 4:1, 14)

베드로(행 10:19)

안디옥 지도자들(행 13:2)

바울과 그 일행(행 16:6-10)

에베소 교회 장로들(행 20:28).

2.4. 구원의 증표/사인 ('구원의 영' / the Soteriological Spirit; '종말의 영' / the Eschatological Spirit)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행 2:38)

사마리아 사람들(행 8:14-17)

고넬료와 그 일가(행 10:44-48; 11:15-18)

에베소에 있던 세례요한 제자들(행 19:1-7).

2.5. 기적, 방언 ('능력의 영' / the Spirit of Power)

예수(눅 4:18ff.; 행 10:38; cf., 눅 1:17, 35; 4:14; 24:49; 행 1:8)

예수의 사도/제자들; 증인들(행 2:4; 10:44-46; 19:6).

2.6. 은사, 신앙-윤리적 삶 ('은사의 영' / the Spirit of Gift; '윤리의 영' / the Ethical Spirit)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콜라 (지혜/믿음 - 행 6:3, 5, 10; 11:24); 예수, 비시디아 안디옥 제자들(기쁨-눅 10:21; 행 13:52; cf., 세례요한-눅 1:41-44) 구원받은 성도들(신앙-윤리적 삶 - 행 2:42-47; 4:31-37; 5:1-11; 6:3; 11:24[바나바]).

3. 함축들

우리는 누가복음-사도행전(또한 신약 전반)에 나타나는 성령의 표현과 그 기능들을 통해, 특별히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들(e.g., 행 2:14-42)에 의해, 이 성령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민 11:29)와 선지자들(e.g., 겔 36:26-27; 율 2:28-32)을 통해 소망되었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성령은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하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존귀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는 '예수의 영으로서의 성령'임(행 2:33; 16:17; cf., 눅 12:12; 21:15)을 또한 밝혔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그리고 다른 신약의 책들)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1)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 임재하심에 대한 증

표/사인(e.g., 눅 1:35; 3:22; 4:18; 행 13:38)임을 보여주며, 아울러 (2) 이 성령은 메시아로서 예수의 탄생, 사역과 관련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의 예수께 향한 증인 사역과 관련하여 - 즉 예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능력, 역사하심, 임재 - 그 기능/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e.g., 눅 24:46-49; 행 1:8; 4:8ff.; 7:55ff.; 9:17ff.)이다. (3) 그리고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 즉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남(e.g., 행 6:3-10; 11:24; 20:28-32; cf., 행 2:43-47; 4:31-35; 9:31)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도달한 함축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아래의 두 가지 도표들을 참고해 보라.

도표1: 구약(MT & LXX)에서 나타난 신적 의미의 영에 대한 표현들

용 어	빈도수 (MT/LXX+OT Apocrypha)
주[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25(24+1)
나/그/당신[하나님]의 영 (My/His/Your[God's] Spirit)	23(21+2)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13(13+0)
그/당신[하나님]의 거룩한 영 (His/Your[God's] holy Spirit)	6(3+3)
당신[하나님]의 선한 영(Your[God's] good Spirit)	2(2+0)
성령(the Holy Spirit)	1(0+1)
영 그리고 다른 표현들 (the Spirit and other expressions)	44/41(35/32+7)
계	114/111(98: MT/ 95: LXX + 14: OT Apocrypha)

도표2: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신적 의미의 영에 대한 표현들

용 어	빈도수 (누가복음 + 사도행전)
성령(the Holy Spirit)	54(13+41)
영(the Spirit)	14(3+11)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3(1+2)
나[하나님]의 영(My[God's] Spirit)	2(0+2)
예수의 영(the Spirit of Jesus)	1(0+1)
계	74(17+57)

한 마디로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 그리고 다른 신약성경 -에서 말해주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에 대해 '증인/증거하는 성령'(the Holy Spirit of witness)이라는 점이다.⁴⁵⁾

V.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성령의 신학적 이해와 그 의의 : '주로서의 예수 이해'와 관련하여

45)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 성령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이름이 밝혀진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세레 요한(눅 1:15); 마리아(눅 1:35); 엘리사벳(눅 1:41); 스가라(눅 1:67); 시므온(눅 2:25,26,27); 예수(눅 1:35, 3:22; 4:1, 14, 18; 10:21; 행 1:2; 2:33; 10:38); 베드로(행 4:8; 8:17; 10:19; 11:12); 스테반(행 6:3, 5; 7:55); 빌립(행 6:3; 8:29,39); 바울(행 9:17; 13:2, 4,9; 16:6-7; 19:6, 21;20:21-22); 바나바(행 11:24; 13:2,4); 아가보(행 11:28; 21:11); 다윗(행 1:16; 4:25); 이사야(행 28:25). 이에 비해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어 이름이 밝혀지는 구약의 인물들은 24명이다. 위의 각주 31)을 보라.

1. 성령의 주(主)로서의 하나님(God as the LORD of the Holy Spirit)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다. 창조주(the LORD of Creation)와 구원의 주(the LORD of Salvation)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도나이'(나의 주)라 불리웠던 것이다. 이 같은 절대적 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언약들 - 대표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모세와 그의 백성, 다윗, 예레미아 - 을 통해 이스라엘 무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들('신의 현현'[theophany]으로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천사(들),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로부터의) 소리, 연기, 강한 바람, 천둥, 번개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음⁴⁶⁾과 둘째는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이 하나님의 특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영감되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그 출원에 있어서나 그 역할에 있어서 절대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와

46) 창 15:17 (불/소리); 출 3:2 (불/소리); 13:21-22 (구름/불); 14:24 (구름/불); 19:18 (구름/불); 24:17 (구름/불); 민 14:14 (구름/불); 신 4:12 (불/소리), 24(불), 33(불/소리), 36 (불/소리); 10:4 (불); 왕상 19:12 (불/바람); 왕하 2:11 (불/구름); 칠십인역 시편 17:9 (연기/불); 칠십인역 시편 28:7 (소리/불); 욥 37:2-5 (천둥/번개/소리); 겔 1:25-28 (소리/불); 단 7:9-14 (불/소리/언어들). Menzies, Op. cit., p.238 각주 1)을 보라. Cf., M.G.Kline, *Images of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1980), pp. 35-56.

하나님' 그 분 자신에 기인하고 또 그 분의 존재, 능력,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신적 루아호'의 명칭과 그 기능에 있어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관하시는 그 신적 사역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분만의 주권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즉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신적 주체로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신적 루아호'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의 영'(the Spirit of Witness to God the LORD)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성령의 주(主)로서의 예수(Jesus as the LORD of the Holy Spirit)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증거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새 언약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절대주가 되심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다(e.g., 마 1:20, 22, 24; 막 5:19; 눅 1:6, 9, 11, 15, 17; 요 12:38; 롬 4:8; 히 1:10; 7:21; 약 5:11; 벧전 1:25; 2:3). 즉,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또는 오늘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앙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e.g., 막 8:29-30; 14:61-62; 마 26:64; 눅 22:67-70)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 같은 자(e.g., 히 3:1; 4:14-16; 6:20)로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자(e.g., 눅 1:30-33)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 같은 자(e.g., 눅 4:16:21; 행 3:22-24)로서의 '여호와와 종'(e.g., 눅 24:26, 46; 행 3:26; 4:27)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또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앙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e.g., 행 1:21, 24; 2:25, 34-35, 36; 11:21, 23, 24; 15:35, 40; 15:11; 20:35)로 고백을 하는 자들이다.⁴⁷⁾ 이것이 바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증거 했던 메시지 바로 그것이다: ‘예수는 우리들의 그 메시야(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e.g., 행 2:36; 11:17; 15:26; 28:31).

성서학자들은 신약의 기독교론(Christology) -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 을 연구하는 데 있어 주로 예수님의 칭호들, 예를 들면, ‘인자’(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메시야/그리스도’(the Messiah/Christ), ‘고난받는 종’(the Suffering Servant)과 같은 용어들에 집중하곤 했다. 그래서 이 같은 연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특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밝히려 한 것이다. 즉, 관심의 초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신약 전반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기능적[functionally]으로) 동등하게, 우리 신앙의 주(主)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창 12:1-9; 15:1-21; 17:1-14), 모세(출 19:1-6), 그리고 다윗(삼하 7:1-17)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새 언약(렘 31:31)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어졌다는 점(눅 22:20; 막 14:24; 마 26:28)에서 신약의 성령을 ‘새 언약의 영’(the Spirit of New Covenant)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cf., 행 2:39).

여기서 우리의 요점은 이것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47)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주(主)’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W. Foerster, “κύριος,” *TDNT*, vol. III, pp. 1086-95를 참조하라.

의 주권에 있었던 성령의 보내심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의해, 신약의 종말론적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보내심/ 부어주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눅 24:49; 행 2:33; cf., 요 15:26; 16:7; 20:22).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분 자신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그 ‘신적 루아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주 불리웠던 그 루아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유 권한에 동참하는 분으로 계시됨으로써, 이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부어주시는 ‘예수의 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⁸⁾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물론 신약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증거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신약의 강조점은 오히려 후자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3. 함축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확증하셨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이 담지 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들을 나열함으로써, 주(主)로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권세를 누리고 있

48) 이 같은 ‘성령의 신적 출원’(the divine procession of the Holy Spirit)에 대한 교회사적 이슈가 ‘filioque(그리고 아들로부터) 논쟁’을 낳게 됨으로써 1054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S.M. Burgess, *The Holy Spirit: Ancient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Hendrickson, 1984); *idem*, *The Holy Spirit: Eastern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Hendrickson, 1989); J. McIntyre, *The Shape of Pneumatology: Studies in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Edinburgh: T. & T. Clark, 1997)을 참조하라.

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1)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⁴⁹⁾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다(행 2:38; 8:16; 10:48; 19:5; 22:16; cf., 마 28:19).
- (2) 예수님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 한다기보다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이다(눅 24:48; 행 1:8, 22; 2:32, 40; 3:15; 4:33; 5:32; 8:25; 10:39, 41, 42, 43; 13:31; 14:3; 18:5; 20:21, 24; 23:11; 26:16, 22; 22:15, 18, 20; 28:23).
- (3) 예수님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가르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그 능력의 출원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다(행 3:6, 16; 4:7, 10, 12, 17, 18, 30; 5:28, 40; 9:27, 28; cf., 19:13, 17-20).
- (4) 구약에서 하나님께 적용시켰던 본문들을 예수님께 재해석하여 적용시킨다는 사실이다(요엘 2:32; 행 2:

49) 사도행전에서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진 '예수의 이름(ὄνομα)'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본문들을 참조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행 2:38; 3:6; 4:10; 8:12; 10:48; 16:18;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행 4:18, 30; 5:40; 9:27, 29; 22:16; 26:9; cf., 3:6; 4:7, 12, 17; 5:28; 9:21; '주 예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행 8:16; 19:5, 13, 17; '그/나[예수]의 이름을 위하여'(for the sake of the name/ my name) 또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행 5:41; 9:16; 21:13; '그[예수]의 이름을 통한 죄 용서'(forgiveness of sins through his[Jesus'] name) 행 10:43; '그[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의 죄가 씻기운다'(and have your sins washed away, calling on his[Jesus'] name) 행 22:16. 이와 반대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단지 2번(행 15:14, 17)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 21, 38; 4:12; 9:14, 21; 22:16; cf., 고전 1:2; 롬 10:13).
- (5)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 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체험(말하자면, 예수의 신적 현현 Christophony; cf., Theophony)한다는 사실이다(행 7:55-56; 9:4-6, 10-16; 18:9-10; 22:7-10, 18, 21; 23:11; 26:14-18).
- (6) 존귀케 되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다(행 7:59-60; 1:24; cf., 눅 24:52; 행 19:17; 고후 12:2-10; 고전 16:22;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 롬 1:8; 7:25; 고후 1:20; 골 3:17).
- (7) '나사렛 이단'(행 24:5, 14)이라고 불리우는 그 도/진리(δδός)⁵⁰⁾를 따라가고 그 도/진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이다(행 9:2; 19:9, 23; 22:4; 24:14, 22; cf., 5:14; 9:35, 42; 11:17, 21b, 24; 16:15, 31; 18:8).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행 20:21).

위의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에서 예언한 (1)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the Messiah as God's Servant, i.e. God's Agent)일 뿐 아니라, (2) 하나님의 고유 권세를 함께 행사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동역-통치자'(Lord Jesus as God's Co-regent)로 간주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50) 이 단어 δδός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각각 20번 발견되는데, 다음과 같은 본문들은 문자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여짐으로써 '진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눅 1:76, 79; 3:4; 7:27; 20:21; 행 2:28; 13:10; 16:17; 18:25, 26. 무엇보다 다음의 경우들은 이 용어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가르침으로서의 도'를 의미함으로 전문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행 9:2; 19:9, 23; 22:4; 24:14, 22. E.J. Tinsley,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pp. 107, 209-210을 참조하라.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서구 성서학의 경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여기에 담긴 부정적 전제와 그 방법에 대한 대응으로 '성경신학'의 태동을 생각해 보았고, 나아가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전제와 그 접근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 이해'라는 테마를,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관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모두 주(主)로서 고백되는 초대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적 체험과 그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상고해 보았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이며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 했던 '신적 루아호(רוח)/ 프뉴마(πνεῦμα)'(즉, 성령)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존귀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이 성령을 통해(구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주(主)가 되심을 계시해 주는 그 신적 근거를 밝힌 셈이다.⁵¹⁾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εἰς θεὸς ὁ πατήρ - one God, the Father)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51) 이것을 우리는 '성령-기독론'(Spirit-Christology)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예수님과 성령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를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εἰς κύριος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 one Lord, Jesus Christ)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전 8:4b-6).

오늘날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여) 한국 교회운동의 한 현상으로써의 성령운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고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필자는 위에서 논의한 주장을 근거로, 개혁주의적 성령운동의 한 본질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을 끝맺고자 한다.

바른 성경적 성령운동은 그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바로 고백하고 또한 바로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참 하나님 중심의 성령운동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성령운동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참 말씀이라는 고백과 이 말씀의 선포(예를 들면, 설교, 전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와 주(主)'가 되심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missiological life)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부여하시는 성령의 온갖 은사들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하나님의 영'으로서)과 예수('예수의 영')를 계시함으로써, 이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주(主)로 고백케 하는 '고백의 영'(the Holy Spirit for Confession of God and Jesus as LORD)임과 동시에 또한 '증인의 영'(the Holy Spirit of Witness to God and Jesus as LORD)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

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우리는 이 일에 증인(witness)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즉 증인이니라] 하더라” (행 5:32).

참 고 문 헌

- 강대홍. “구약신학의 최근 동향: 구약신학의 문제점과 제안.” *성경과 신학*, 21(1997):77-113.
- 김영철. *성경신학의 입장에서 본 노아홍수: 구약본문에 대한 성경신학적 해석의 실패*. 서울: 여수문, 1988.
- 김정우. “구약에 나타난 주의 영에 대한 교차방법론적 접근(A Cross-Sectional Approach).” *성경과 신학*, 15(1994):84-158.
- 김지찬. “구약사의 지평에서 바라본 성령의 사역.” *성경과 신학*, 20(1996):47-93.
- 박동현. “야훼 하나님의 영과 그의 백성.” *성령과 교회*. 김지철 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5-65.
- 박수암. “신약학 분야에서의 회고와 전망.” *교회와 신학*, 36(1999):14-31.
-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83.
- 심상범. “복음주의 신약연구의 동향.” *성경과 신학*, 21(1997):37-70.
- 이순태. *언약과 구속*.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한수. *신약의 성령론*.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4.
- 정규남. “구약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 *구약신학의 맥*. 서울: 두란노, 1996:327-55.
- 정창균. “구속사적 설교론의 근거와 제기되는 문제들.” *그말씀*, 11(1998):6-13.
- 차준희. “구약의 영 이해.” *성경과 신학*, 20(1996):359-392.
- 최갑중. *예수. 교회. 성령: 누가와 바울의 성령론에 관한 연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_____. *성령과 율법*.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한재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관계.” *교회와 문화*, 2(1998):38-44.
- 황창기 편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 허 주. “누가(복음)-(사도)행전에서의 성령에 대한 역동적 해석.” *호서신학*, 5(1998):347-388.
- _____. “누가의 성령: 과연 누구를 위한 성령인가?” *성서사랑방*, 7(1999):30-41.
- Baker. D.L. *Two Testaments One Bible: A Study of Some Modern Solutions to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Leicester: IVP, 1976. - 오광만 옮김.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서울: 엠마오, 1989.

- Bovon. F. *Luke the Theologian. Thirty-Three Years of Research (1950-1983)*. K. McKinney. trans.. Allison Park: Pickwick Papers, 1987.
- Burgess. S.M. *The Holy Spirit: Ancient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Hendrickson, 1984.
- . *The Holy Spirit: Eastern Christian Traditions*. Peabody: Hendrickson, 1989.
-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T. McNeill ed., F.L. Battles. tran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hilds. B.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박문재 옮김. 성경신학의 위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 .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2.
- Clowney. E.P.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김정훈 옮김. 설교와 성경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 Conn. H.M. "A Historical Prologue: Inerrancy. Hermeneutic. and Westminster," in *Inerrancy and Hermeneutic: A Tradition. A Challenge. A Debate*. H.M. Conn. ed.. Grand Rapids: Baker, 1988:15-34.
- Dumbrell. W. *Covenant and Creation*. Paternoster: Lancer, 1984.
- .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Lancer: Baker, 1985.
- Ferguson. S.B. *The Holy Spirit*. Leicester: IVP, 1996. - 김제성 옮김. 성령. 서울: IVP, 1999.
- Foerster. W. "κύριος," *TDNT*. vol. III:1086-95.
- Gaffin. R.B., Jr. *Perspectives on Pentecost: New Testament Teaching o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9.
- Goldsworthy. G. *According to Plan: The Unfolding Revelation of God in the Bible*. Lancer: IVP, 1991.
- Goppelt. L.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2. - 최종태 옮김. 모형론: 신약의 구약해석. 서울: 세순, 1987.
- Green. J.B.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 Interpretation*. Grand Rapids: Eerdmans; Carlisle: Paternoster, 1995.
- Hasel. G.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78.
- Hur. J. *A Dynamic Reading of the Holy Spirit in Luke-Ac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England, 1998.
- Kline. M.G. *Images of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1980.
- Lehman. C.K. *Biblical Theology: Old Testament*. vol. 1.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 김인환 옮김. 성경신학. 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Longman. T. III & Reid. D.G. *God is a Warrio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성종현 옮김. 거룩한 용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6.
- Marshall. I.H.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on Principles and Methods*. Exeter: Paternoster, 1977.
- McIntyre. J. *The Shape of Pneumatology: Studies in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Edinburgh: T. & T. Clark, 1997.
- Menzies. R.P. *The Development of Early Christian Pneumat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Luke-Acts*. JSNTSup. 54; Sheffield: JSOT Press, 1991.
- Morgan. R. and Barton. J.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Poythress. V.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87.
- .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Brentwood: Wolgemuth & Hyatt, 1991.
- Reumann. J. *The Promise and Practice of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1.
- Reventlow. H.G. *Problems of Biblical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Fortress, 1986.
- Ridderbos. H.N. *Redemptive History and the New Testament Scriptures*. Biblical & Theological Studi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nd revised edn., 1988.
- Robertson. O.P. *Christ of the Covenants*, 1980.
- Smart. J.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 Strom. M. *The Symphony of Scripture: Making Sense of the*

Bible's Many Themes. Downers Grove: IVP, 1990 - 오광만 옮김. 성경교향곡. 서울: IVP, 1993.

Tinsley. E.J.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Turner. M.M.B. "The Significance of Receiving the Spirit in Luke-Acts: A Survey of Modern Scholarship." *Trinity Journal*, 2(1981):131-58.

_____. "The Spirit of Christ and Divine Christology." in J.B. Green and M. Turner (eds.). *Jesus of Nazareth Lord and Christ: Essays on the Historical Jesus and New Testament Christology*. Festschrift I.H. Marshall; Grand Rapids: Eerdmans. 1994:413-36.

_____.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in Israels Restoration and Witness in Luke-Acts*. JPTSup. 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VanGemeren. W.A.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 안봉호. 김의원 옮김. 구원계시의 발전사. I & II. 서울: 성경읽기사, 1993.

Vos. G.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48. - 이승구 옮김. 성경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_____.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The Shorter Writings of Geerhardus Vos*. R.B. Gaffin. Jr., ed..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 이길호. 원광연 옮김. 구속사와 성경해석.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高麗神學

第2輯

주후 1999년 9월 1일 인쇄
주후 1999년 9월 9일 발행

<비 매 품>

발행인 석원태
편집인 황명길
인쇄발행 신한홍종합시스템
고려신학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31번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68-18
Tel. 0348) 958-6001~8, Fax. 0348) 958-6009